

의학학술지 평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획평가위원장

홍성태

학습 목표: 의편집의 국내 학술지 평가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 1) 평가 기준의 대항목 3 가지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편집 평가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3) 평가 전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항목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4)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5) 학진 평가와 차이점을 3 가지 이상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1. 논문과 학술지의 역할

의학분야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결과물을 출판하는 학문영역이다. 세계적으로 전체 과학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약 1/3이 의학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다. 논문은 학문적으로 개개인이 창조한 새로운 학술지견을 동일한 관심을 공유하는 전문가 세상으로 형식과 절차를 걸쳐서 공개하는 것이다. 이 공개를 통하여 논문의 내용을 최종 검증받고 전문영역의 다른 연구자와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학술활동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학술지이다. 학술지는 즉 저자들이 생산한 학술적인 창작물을 전문가들에게 배포하고 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다.

2. 논문의 평가와 학술지의 출판

저자가 논문 원고를 학술지에 투고하면 편집인은 이를 관련 전문 학자에게 전문가심사(peer review)를 의뢰한다.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편집인은 학술지에 발표할 논문을 선정하여 인쇄하고 학술지를 출판한다. 이 일련의 과정이 학술지의 성격과 수준, 품격을 결정하게 된다. 좋은 학술지는 투고 논문이 많아서 많은 논문을 거부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학술지는 원고난으로 출간일을 지키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3. 저자, 독자, 전문가심사자와 편집인

저자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논문을 생산하여 이를 규격화된 원고형태로 만들어서 투고하는 사람이다. 저자가 있어야 학술지가 존재한다. 전문가심사자는 투고 원고를 출판 전에 미리 읽어보고 전문 학술적인 의견을 내어 논문을 평가한다. 이는 명백한 특권에 해당한다. 그 특권은 학술지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편집인이 부여하는 것이다. 편집인은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만한 전문성을 갖춘 학자를 찾아서 이 임무를 부여한다. 이 전문가심사는 출판할 논문 선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학문활동의 하나이며 대부분은 명예로 생각하여 무보수로 성실하게 수행한다.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객관성과 과학성은 바로 이 전문가심사를 통하여 갖추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하겠다. 독자는 학술지의 소비자이다. 독자의 수가 결국 학술지의 위상을 결정한다. 서양에서는 우리 나라와 달리 의학학술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가 상업성을 추구하면서 발행한다. 그러므로 일정 수의 독자가 유료로 구독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학술지의 성패, 품격, 가치는 독자층의 확보에 달려있다. 많은 독자가 보는 학술지가 좋은 학술지이다. 많은 독자가 보는 학술지라야 거기에 발표한 논문이 인용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논문은 독자가 읽으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문을 인용하라고 발표하는 것이다. 즉 저자는 독자가 읽고 인용할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역할이 이렇게 다르지만 학술지마다 저자, 전문가심사자, 독자가 결국 같은 사람들이다. 일정한 전문 영역별로 학문적인 관심사를 같이 하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함께 학술지를 통하여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인은 이러한 일정 수의 전문가들을 학술지를 매개로 엮어 주는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4. 학술지 평가는 왜 하는가?

지역이 넓고 학술활동을 하는 전문가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같은 학문 영역에도 여러 학술지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학술지 간에도 논문이나 독자를 두고 경쟁하는 일이 생긴다. 학술지가 많아지면서 독자의 수나 인용지수에 따라서 학술지에도 서열이 형성된다. 이는 경쟁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독자도 저자도 모두 좋은 학술지를 구독하고 거기에 논문을 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학술지에 따라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학술지인데 다른 목적으로 필요하여 발행하는 것들도 있게 된다. 실로 원고난이 심할 것이고 게재 논문의 질도 낮을 수 밖에 없다. 겨우 일자 맞추기 급급한 학술지도 있고 아예 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학술지도 생기게 된다. 편집인도 편집에 관심이 없어 체재도 맞추지 않고 원고난이 심하면 전문가심사도 가볍게 하여 오자 투성이의 원고를 그대로 인쇄하여 배포한다. 그러한 학술지는 사실 공해에 가깝다. 투고된 원고의 10%정도만 게재되는 국제 학술지가 있는가 하면 공해 수준의 학술지도 있게 되므로 학술지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요즘 연구자들이 PubMed, Web of Science(SCI), Excerpta Medica, Google Scholar와 같은 세계적인 Web DB를 통한 학술정보 검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 DB도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중요한 Web DB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KoreaMed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이 구축한 KCI가 있다. 각 검색 DB마다 특성을 갖고 자기 정보망에 포함할 학술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해 수준의 학술지가 자신의 DB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검색정보 망끼리도 경쟁할 뿐만 아니라 DB의 완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양호한 정보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 DB구축 주체는 학술지를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5. 국내에서의 학술지 평가

국내에서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는 크게 의편집에서 KoreaMed 등재를 위하여 하는 것과 학진에서 KCI 등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있다. 다른 국내 DB는 평가없이 잡지만 보내면 등재하지만, 이 두 기관에서 구축한 DB에 등재하려면 일정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중에서 의편집에서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가 의학분야 편집인들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고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학술지 평가를 전문가심사(peer review) 형태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중점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6. 의편집 학술지의 단계별 평가

의편집에서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는 일단계와 이단계로 구분한다. 일단계 평가는 의편집 회원가입을 원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발표 논문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중점으로 보고, 정기간행 여부, 투고원고의 전문가심사 시행 여부를 평가한다. 만약 이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학술지는 일단계에서 탈락한다. 이단계 평가는 일단계 평가를 거친 학술지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평가항목에 따라서 점수화 한다. 그 결과 전체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얻으면 KoreaMed에 등재한다.

7. 의편집 학술지의 평가항목

의편집 학술지의 평가항목은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제1영역은 학술지 편집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제2영역은 평가위원이 수행하는 실물평가, 제3영역은 전문사서가 수행하는 협의회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체평가 항목이 주로 학술지 편집과 편집 관련 행정체제, 전문가심사의 시행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 스스로 평가하는데, 실제 시행여부와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보충자료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이 영역은 편집권의 확립과 전문가심사가 핵심이 된다. 실물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최근 간행된 학술지 실물을 보고 편집인 상호간에 시행하는 전문가심사에 해당한다. 편집과 인쇄에서의 오류, 투고규정의 내용, 체재의 완전성 등을 주로 평가한다.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학술지를 잘 편집하는 것이 평가내용의 핵심이다. 협의회평가 항목은 학술지의 배부와 보존, 디지털자료의 제공여부 등을 주로 다룬다. 독자

에게 제공하는 정보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의편협 홈페이지 (www.kamje.or.kr)에서 찾을 수 있다.

8. 의편협 평가의 주기

의편협 평가는 원평가와 재평가로 구분한다. 학술지가 처음 받는 평가가 원평가인데 신청하는 회원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원평가에서 등재에 탈락한 학술지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다시 신청하여 보완평가를 받을 수 있다. 원평가에서 2.5점 이상을 얻어서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는 7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평가를 받는다.

9. 이미 시행한 학술지의 평가결과

지금까지 23회에 걸쳐서 165종의 학술지를 원평가하고 7차에 걸쳐서 75종의 학술지를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 129종의 학술지를 KoreaMed에 등재하였는데 이 중에는 2회 또는 3회 평가를 받아 등재한 학술지도 상당 수 있다. 의편협 회원 학술지중에서 13종이 아직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24종은 여러 번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

10. 학술지 평가의 효과

의편협에서 시행하는 평가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각 학술지 편집인을 교육하는 효과가 커서 바쁜 편집인들이 학술지를 제대로 편집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학술지 편집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KoreaMed를 구축하고 KoMCI Web을 통하여 국내 학술지별 인용도 현황을 조사하고 K-IF를 제공하게 되었다. 평가활동을 시작하여 시행한 10년동안 SCI(E)등재 국내 학술지가 1종에서 6종으로 PubMed 학술지는 5종에서 14종으로 증가하였다.

11. 결론

의편협 의학학술지의 평가는 학술지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학술지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원저 논문이다. 원저 논문의 질적인 향상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우리 나라 의학 논문의 질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같은 논문을 발표하더라도 학술지의 편집을 잘 하면 훨씬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질적인 향상도 유도하게 되어 학술지가 발전하는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다.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제정 1997.8.18.

3차 개정 2001.3.26.

4차 개정 2004. 4.30.

1. 자체평가 항목 :

註. 해당학술지 편집인이 관리하는 기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답해야 하는 평가항목
(실무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12개 항목)

1-1 최근 15년간 편집인 교체 횟수

() 1점 : 9회 이상

() 2점 : 6-8회

() 3점 : 4-5회

() 5점 : 3회 이하

() +1점 : 편집인 전임제를 운영하는 경우 1점 가산.

註. 1) 지령 15년 미만의 학술지인 경우에는 15년으로 환산하여 횟수를 계산.

2) 편집인 전임제는 편집인이 학술지 편집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해당 학술지 발행기관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1-2 편집위원회(또는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정책회의의 빈도

() 1점 : 구성은 되어 있으나 편집정책회의 실적이 없다.

() 2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은 부정기적이고 3회 이내이다.

() 4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를 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 5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 소속원이외의 편집관련 전문인(또는 출판사 직원)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를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註.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의 개정, 편집방침의 결정, 논문게재상 발생하는 분쟁사례의 해결 등을 위한 모임임. 논문심사 편의상 모이는 회의는 위에 포함되지 않음.

1-3 편집업무 지원관련 사항

(1) 1점 : 편집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2) 1점 : 편집업무 담당 사무직원이 있다.

(3) 1점 : 영문교정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

(4) 1점 : 원고의 체제 및 문장수정을 담당하는 copy editor가 있다.

(5) 1점 : 원고 접수일자,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재심사 여부, 게재여부 결정 일자 등

을 장부 또는 컴퓨터로 관리한다.

() : (1)-(5) 해당 점수의 합

1-4 논문 게재 결정

() 0점 : 원고가 편집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쇄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거나 제출 원고를 심사 없이 인쇄소로 넘기는 사례가 있다.

() 1점 : 편집인 단독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점 : 1명의 상호심의회(peer review) 결과에 따라 편집인이 결정한다.

() 5점 : 2명 이상의 상호심의회 후 편집인이 판단한다.

1-5 1차 상호심의회에 소요되는 기간 (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0점 : 상호심의회도 없고, 편집인이 원고를 보지 못한 상태로 인쇄되는 사례가 있다.

() 1점 : 상호심의회 없이 편집인 단독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보다 많다.

() 3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이내이다.

() 4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20%이다.

() 5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이내이다.

註. 1)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편집인이 기간 단축을 독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2) 게재여부를 빨리 결정함으로써 저자가 수정 또는 다른 학술지에 접수하기 쉽도록

특

하기 위함.

1-6 상호심의회 1차 심사 결과 (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0점 : 상호심의회 제도가 없다.

() 1점 : 게재논문의 10% 미만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2점 : 게재논문의 10%-20% 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3점 : 게재논문의 20%-40% 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4점 : 게재논문의 40%-6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5점 : 게재논문의 60% 이상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註. 오자 또는 자구 수정요구는 수정요구에 포함되지 않음.

1-7 상호심의회 최종 결과 배척(rejection) 또는 저자회수(withdraw)율 (최근 2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0점 : 전혀 없다.

() 2점 : 5% 미만

() 3점 : 5% 이상 10% 미만

() 4점 : 10% 이상 20% 미만

() 5점 : 20% 이상

註. 1)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뒤 재심 결과 또는 편집인의 최종 결정을 기

준 으로 함.

2) 저자수정을 의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으면 저자회수로 간주 함.

1-8 기타 상호심의회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 1점 : 심사위원이 재심, 3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2) 1점 : 논문심사 내역서, 저자수정 내역서 등을 보관한다.
- (3) 1점 : 논문심사 지침서 또는 상호심의회 업무편람을 갖추고 있다.
- (4) 2점 : 논문 심사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 (1)-(4) 해당 점수의 합

1-9 정기 발행 여부 (최근 2년간)

- () 0점 : 간기를 정하지 않고 원고가 모이면 발간한다.
- () 1점 : 간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 2점 : 간기를 지키지 못하여 합병호를 발간한 경우가 있다.
- () 5점 : 간기를 어김없이 지킨다.

1-10 저작권 보호(이중게재 방지) 조치

- () 0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없다.
- () 1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상대측 편집인의 허락 없이 이중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
- () 2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관련조항이 있으나 최근 2년간 이중게재를 감시한 일이 없다.
- () 4점 : 투고규정의 저작권 관련 조항이 있으며, (서면상의 동의는 없었더라도) 양측의 합의하에 이중게재를 허용한 예가 있다.
- () 5점 : 양측의 사용 언어가 다르거나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중게재를 허용하는 등 관련 투고 규정이 구체적이며, 감시활동의 실적이 있다.
- () +1점 : 저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 1점 추가.

1-11 발송처 범위 : 자료 제출 필요

- (1) 1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에 기관별로 일괄 발송한다.
- (2) 1점 : 국내 유관기관(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 (3) 1점 : 국외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 (4) 1점 : 판매실적이 있다.
- (5) 1점 : Excerpta Medica,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등 의학 관련 국제 전문 초록잡지에 발송한다.
- () : (1) - (5) 해당 점수의 합

1-12 찾아보기표(index) 작성 여부

- () 0점 : 작성한 적이 없다.
- () 1점 : 수년에 한번씩 만든 적이 있다.
- () 2점 : 권말마다 작성하지만 수록논문 목록 또는 (and/or) 저자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

- () 3점 : 권말마다 수록논문목록, 저자별찾아보기 표 및 중심단어별 찾아보기표를 만든다.

2. 실물평가 항목 :

평가단 모든 위원이 평가대상 학술지의 최근호를 보고 평가하는 항목 (13개 항목)

2-1 표지도안 상태와 오자(誤字) 유무

() 0점 : 표지 지지(紙誌)사항에서 오자가 발견되고 지면배치(lay-out)나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많다.

- () 1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서 오자가 발견된다.
() 2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 오자는 없으나 지면배치와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 3점 : 오자가 없고, 표지 도안은 보통이다.
() 5점 : 훌륭하다.

2-2 투고규정, 판권관리란, 게재논문목록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의 오자유무 및 인쇄상태

- () 0점 : 배열이 조잡하고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며, 오자(띄어쓰기포함)도 자주 발견된다.
() 1점 : 조잡하지는 않으나 인쇄상태가 나쁘고 오자도 발견된다.
() 2점 : 인쇄상태는 괜찮으나 오자가 발견된다.
() 3점 : 오자는 없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 4점 : 오자가 없으며 인쇄상태는 보통이다.
() 5점 : 오자도 없고 인쇄상태도 좋다.

2-3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Ⅰ) :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 (1) 1점 : 취급논문의 범위
(2) 1점 : 논문제출 자격
(3) 1점 : 간기
(4) 1점 : 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요소
(5) 1점 : 학술지의 공식 영문명칭과 약칭을 명시
(6) 1점 : 논문 작성의 기본 요령
() : (1)-(6) 해당 점수의 합

2-4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Ⅱ) : 투고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

- (1) 1점 : 제목 작성 요령
(2) 1점 : 초록 작성 요령
(3) 1점 : 중심단어(key word) 작성 요령
(4) 1점 : 본문의 용어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5) 1점 : 그림, 사진, 도표 작성 요령 및 규격 사항
() : (1)-(5) 해당 점수의 합

2-5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Ⅲ) : 원고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1) 1점 :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 표 (학술지 내 또는 학회 홈페이지 참고 가능)
- (2) 1점 : 교정쇄(Page Proof) 처리에 관한 사항
- (3) 1점 : 원고의 표지 및 속표지 작성 요령
- (4) 1점 :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
- (5) 1점 : Electronic원고(floppy diskette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6) 1점 : 인체실험의 경우 사전 동의와 IRB 승인서 요구 여부
- (7) 1점 : 동물실험의 IRB 승인서 요구 여부
- () : (1)-(7) 해당 점수의 합

2-6 논문(국문 또는 영문)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사항의 인쇄 체제와 오자 유무

- () 0점 : 논문제목에서 1군데 이상의 오자가 발견된다.
 - () 1점 : 논문 상호간 체제상의 차이가 있다.
 - () 3점 : 일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오자도 없지만 고유명사 표기의 오류와 부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
 - () 4점 : 이상의 사항은 좋으나 제목 등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못한 논문이 있다.
 - () 5점 :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 註. 체제상의 차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표기에 차이
 - 2)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뒤에 학위 표기 여부의 차이
 - 3) 활자크기의 차이
 - 4) 소속 표기와 관련하여 도시명, 우편번호, 국가명 표기의 차이

2-7 영문(또는 국문)초록의 체제와 오자 유무

- () 1점 : 체제가 일정치 않다.
- () 2점 : 체제는 일정하지만 오자가 발견된다.
- () 3점 : 체제가 일정하고 오자도 없지만 어색한 문장이 발견되거나 초록이 다음 페이지

지

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다.

- () 4점 :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지면배치에 짜임새가 없다.
- () 5점 : 완벽하다.

註. 일정치 않은 체제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정형초록(structured abstract)과 비정형초록(nonstructured abstract)의 혼용
- 2) 초록내 결과에 번호를 붙여 기술한 논문이 있는 경우(요약형식)
- 3) 여러개의 문단(paragraph)으로 나눈 초록이 있는 경우
- 4) 줄간격이 초록마다 다른 경우 등

2-8 본문(참고문헌 인용 및 문헌 나열 관련 사항 제외)의 체제와 오자(띄어쓰기 제외) 유무

- () 0점 : 체제에 일관성이 없거나 논문구성요소 중 일부요소가 누락된 논문이 게재된

경

우

- () 1점 : 어색한 문장과 오자가 자주 발견되거나 오자가 많은 논문 (해당 논문에서 페

이

지 당 2개 이상)이 게재된 경우

- () 2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2개
- () 3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개 미만
- () 5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2-9 참고문헌 인용과 나열 방식

- () 0점 : 투고규정에 참고문헌 인용 및 나열 방식에 대한 안내가 없다.
- () 1점 :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이 있다.
- () 2점 : 모든 논문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에 맞추었으나 참고문헌의 약자표기에 오류가 있다.
- () 3점 :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저자이름, 또는 연도-권-호-페이지 표기방식에서 일

부

오류가 발견된다.

- () 4점 : 체제상 완벽하나 오자가 발견된다.
 - () 5점 : 무작위로 택한 2편의 논문에서 전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 () +1점: 참고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기재하면 추가로 1점 가산함.
- 註. 방식이란 Harvard style, Vancouver style 또는 기타 변형 style을 말한다.

2-10 표(table)의 설명문안과 배치

- (1) 1점 : 오자가 없다.
- (2) 1점 : 설명 문안의 체제가 일정하다.
- (3) 1점 : 사용한 약어의 설명 각주가 있다.
- (4) 1점 : 표의 내부에 수직선이 없다.
- (5) 1점 : 표의 크기 및 배치가 적절하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2-11 사진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

- (1) 1점 : 사진이 선명하다.
- (2) 1점 : 설명체제 (배율, 염색명 등 포함) 에 일관성이 있다.
- (3) 1점 : 설명이 정확하고(사진에 화살표 등 표시) 상세하다.
- (4) 1점 : 크기가 적절하다.
- (5) 1점 : 사진의 배치가 적절하다.
- (6)-3점 : 원본 사진이 아니거나(제록스 복사 등), 남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

용

하지 않고 있다 (3점을 감점 함).

- () : (1)-(5) 해당 점수의 합
-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사진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2 도형그림(line drawing)의 작성 방법, 글씨 크기 및 배치

- (1) 2점 : 도형그림의 작성 방법이 전문적이다 (컴퓨터 그래픽 혹은 전문가적 그림).
- (2) 1점 : 글씨 크기가 적절하다.

- (3) 1점 : 도형그림 크기가 적절하다.
- (4) 1점 : 배치가 적절하다.
- (5)-3점 : 타인의 도형그림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3점을 감점 함).
- () : (1)-(5) 해당 점수의 합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도형그림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3 학술지의 판권과 연락처에 관한 별 쪽의 안내

- (1) 1점 :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간략한 기술
- (2) 1점 : 발행인, 편집인, 및 편집위원에 관한 사항
- (3) 2점 : 연락처 (주소, 전화, Fax)
- (4) 1점 : 홈페이지 및 e-mail 주소
- () : (1)-(4) 해당 점수의 합

3. 협의회 조사 항목 :

註.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항목 (6개 항목)

3-1 발행 일자 준수 여부 (최근 2년간)

- () 0점 : 정해진 발간일이 없다.
- () 1점 : 연간 발행 횟수의 25% 이상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2점 : 연간 발행 횟수의 25% 미만에서 2주일 이상 지연되었다.
- () 3점 : 정해진 발간일에서 2주일 이내 지연된 일이 있다.
- () 5점 : 정해진 발간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다.

註. 최근 1년간 의편집 납본일(학술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14일을 빼고 지연기간을 산출한다.

3-2 게재논문의 자체 학술지 인용 비율(Journal Self-Citation Rate)

- () 0점 : 전혀 없다
- () 1점 : 3% 미만
- () 2점 : 3% 이상 5% 미만
- () 3점 : 5% 이상 8% 미만
- () 4점 : 8% 이상 10% 미만
- () 5점 : 10% 이상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 전체 중 자체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 수의 백분율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값

3-3 5개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SCI, PubMed, EMBASE, Biosis Preview, CA Search) 등재 여부

- () 0점 : 등재 안됨
- () 1점 : 1곳에 등재
- () 2점 : 2곳에 등재
- () 3점 : 3곳에 등재
- () 4점 : 4곳에 등재
- () 5점 : 5곳에 등재

註. 등재 여부는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등재로 인정.

3-4 SCI impact factor (최근 3년간)

- 0점 : 없음
- 1점 : 0.05 미만
- 2점 : 0.05 이상 0.1 미만
- 3점 : 0.1 이상 0.3 미만
- 4점 : 0.3 이상 0.5 미만
- 5점 : 0.5 이상

註. 평가시점의 전년도 SCI impact factor를 산출하여 사용한다.

3-5 참고문헌의 오류

- 0점 : 전체 논문에서 10% 이상의 오류가 발견됨
- 1점 : 연간 2개 이상 호에서 오류가 있고 오류 문헌이 6-10개임
- 2점 : 연간 한 호에서만 오류가 있으나 오류 문헌이 5개 이상임
- 3점 : 연간 한 호에서만 오류가 있고 오류 문헌이 5개 이하임
- 4점 : 1년간 발행 호 전체에서 1-2개 오류를 찾을 수 있음
- 5점 : 전혀 오류 문헌을 찾을 수 없음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발행분을 이용한다. 문헌의 오류란 투고규정상의 참고문헌 기재 방식의 오류가 아니라 학술지명, 연도, 권호수, 쪽수, 논문명, 저자명 등 내용상의 인용 오류를 말한다.

3-6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

- 1점 : 학술지관련 Website가 있다.
- 2점 : KoreaMed LinkOut에 참여하고 있다.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록검색이 가능하다(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다((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합계

註. KoreaMed를 제외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조사한다.

3-7 KoMCI 인용도(재평가 학술지만 해당)

- 0점 : 0
- 1점 : 0.1 미만
- 2점 : 0.1 - 0.25 미만
- 3점 : 0.25 - 0.5 미만
- 4점 : 0.5 - 1.0 미만
- 5점 : 1.0 이상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값을 이용한다.

3-8 KoreaMed 파일 입력률(1997년 이후의 입력률, 재평가 학술지만 해당)

- 0점 : 60% 미만
- 1점 : 60% - 7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4점 : 90% - 100% 미만
- 5점 : 100%